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0

http://sri.kostat.go.kr

2020

통계청
통계개발원

교육과 삶의 질에 대한 인식

김성식 (서울교육대학교)

- 자녀교육 성공의 의미에 대해 자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됨',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됨, 좋은 직장에 취직함'등의 인식이 높았다.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에 성공 의미를 두는 비율은 증가한 반면, 명문대학 입학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삶에 대한 만족도는 시간에 따라 점차 높아지는 추이를 보였다. 다른 국가 학생들과 비교해볼 때, 삶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이하의 수준을 보였지만 과거에 비해 높아졌고,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이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학졸업장 유무에 대한 차별 인식은 심각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은 최종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 교육이 개인의 경제적 부 증대, 사회적 지위 향상, 심리적 만족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인식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최종학력과 가구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심리적 만족감에 대한 영향이 크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단순한 배움을 넘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다 알고 있듯이, 한국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다 못해서 과열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는 교육적인 면과 현실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교육은 사람을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교육을 통해서 인격을 완성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준다. 뿐만 아니라 교육은 직업과 지위 획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회 이동의 통로로서 기능한다.

교육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성취를 보이는가에 따라서 이후의 삶이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 인격과 능력형성에 강조를 두는 것과 좋은 직업을 위해 교육에 관심을 두는 것은 교육에 대한 요구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을 경험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삶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

현실 교육에 대한 참여와 그로 인한 삶의 모습은 교육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인식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은 여론, 압력 등 다양한 형태로 교육과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일반 국민들이 교육을 바라보는 인식이 어떤 경향을 갖고 있는가는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 통계청의 「사회조사」,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결과를 중심으로

교육과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교육 성공에 대한 인식,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삶에 대한 만족도,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 교육이 삶에 미치는 영향 등 4개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각각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경향과 최근 변화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같은 인식과 변화가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다루어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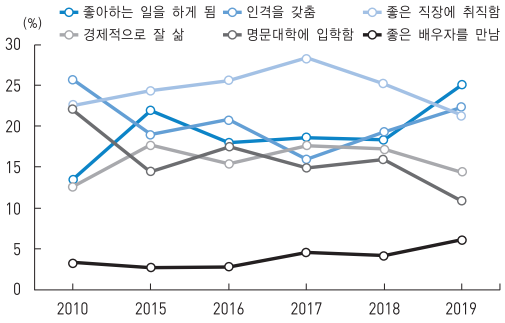
자녀교육 성공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는 자녀교육에 대한 열망이 크다. 왜 자녀교육에 과열된 경쟁을 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자녀교육에 성공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림 Ⅳ-21]은 "우리나라에서 자녀교육에 성공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2019년을 기준으로 볼 때,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이는 항목은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25.1%)',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었다(22.4%)',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였다(23.1%)'등으로 나타났다.

자녀교육 성공에 대한 인식의 지난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인식은 21.9%에서 25.1%로 증가하였고,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갔다'는 인식

[그림 Ⅳ-21] 자녀교육 성공에 대한 인식, 2010-2019



주: 1) 전국 만 19-75세 미만 성인남녀를 조사대상으로 함.
2)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에 성공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각 연도.

은 14.5%에서 10.8%로 감소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는 응답은 2017년 28.3%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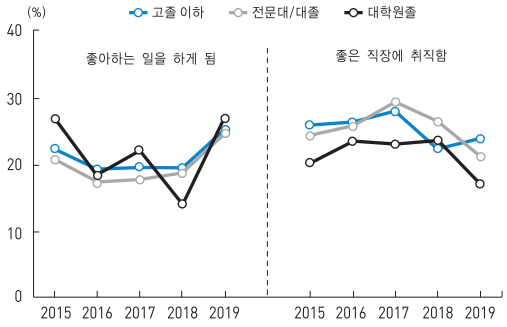
이런 결과는 자녀교육에 대한 중점이 경제적인 부나 좋은 직업 획득과 같은 수단적 의미는 다소 약화되면서 인격 형성, 자아실현 등과 같은 내재적 의미가 좀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 [그림 Ⅳ-22]는 최종학력과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인식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6개의 항목 중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였다'등의 2개 항목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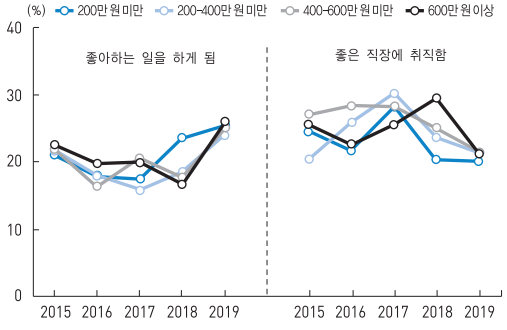
최종학력별로 살펴보면, '자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응답에서 학력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인 대학원 졸업 이상이 연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는 응답에서

[그림 Ⅳ-22] 최종학력 및 가구소득별 자녀교육 성공에 대한 인식, 2015-2019

1) 최종학력



2) 월가구소득



주: 1) 전국 만 19-75세 미만 성인 남녀를 조사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에 성공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음.
3) 6개 응답 항목 중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와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등 2개 항목의 응답 결과만을 제시하였음.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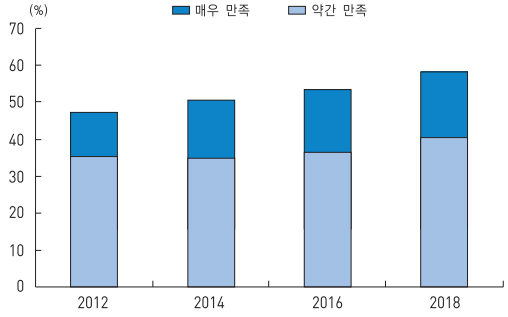
는 대학원 졸업 이상 집단의 비율이 대체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볼 때, '자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응답에서 모든 집단이 전체적인 변화 추세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연도에 따라서 변화 폭이 집단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감소하다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좀 더 높은 증가 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는 응답에서는 대부분 집단에서 증가하다 감소하는 전체적인 변화 추세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600만 원 이상 집단은 2017년과 2018년에 증가하다가 2019년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교생활과 삶에 대한 만족

[그림 Ⅳ-23]은 초·중·고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낸 것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학생들의 58.0%가 학교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을 하였다. 이와 같은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학생 비율은 2012년 47.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매우 만족'의 비율은 11.9%에서 17.6%로 증가하였고, '약간 만족'의 비율은 35.3%에서 40.4%로 증가하였다.

[그림 Ⅳ-23] 초·중·고 학생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 2012-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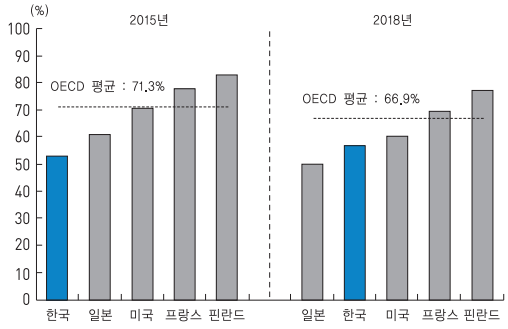
주: 1) 만족도는 현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만 13세 이상) 중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한다고('매우 만족'+'약간 만족')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Ⅳ-24]는 고등학생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주요 국가 간에 비교한 것이다. 2018년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만족 비율이 56.7%로 OECD 평균 66.9%보다 낮았다. 일본(50.2%)보다는 높았지만, 미국(60.7%), 핀란드(77.6%), 프랑스(69.6%)보다는 낮았다.

2015년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52.8%에서 약간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OECD 평균은 4.4%p 감소하였고, 다른 국가들은 적게는 5.5%p(핀란드), 많게는 10.8%p(일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Ⅳ-24] OECD 주요국 학생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 2015,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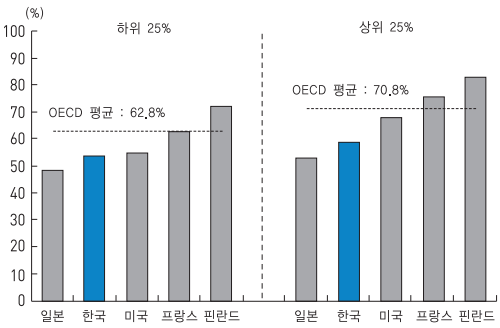


주: 1) 조사대상은 각 국 만 15세 재학생임.
2) 설문문항은 "요즘 전반적으로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라고 질문되었고, '전혀 만족하지 않음'부터 '완전히 만족함'까지 11점 척도(0-10점)로 조사되었음.
3) 만족도는 7점에서 10점까지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출처: OECD, *PISA 2015 Results (Volume III): Students Well-Being, 2017; PISA 2018 Results (Volume III): What School Life Means for Students' Lives*,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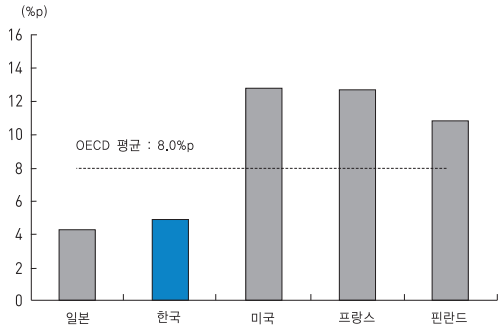
[그림 Ⅳ-25]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고등학생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제시한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 배경의 하위 25% 집단과 상위 25% 집단 간의 차이가 4.9%p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국가 중에서 일본(4.3%p)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서 OECD 평균은 8.0%p로 나타났고, 미국, 프랑스, 핀란드 등은 각각 12.8%p, 12.7%p 10.9%p 등으로 나타나서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큰 차이를

[그림 Ⅳ-25] OECD 주요국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 차이, 2018

1) 사회경제적 배경 하위 25%와 상위 25% 집단의 만족도



2) 사회경제적 배경 하위 25%와 상위 25% 집단의 만족도 차이



주: 1) 조사대상은 각 국 만 15세 재학생임.
2) 설문문항은 "요즘 전반적으로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라고 질문되었고, '전혀 만족하지 않음'부터 '완전히 만족함'까지 11점 척도(0-10점)로 조사되었음.
3) 만족도는 7점에서 10점까지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4) 사회경제적 배경은 PISA가 제공하는 '경제·사회·문화 지위 지수(PISA index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tatus (ESCS))'를 활용한 것으로 가정의 재정상태, 부모의 직업과 학력 등이 반영되었음.
출처: OECD, *PISA 2018 Results (Volume III): What School Life Means for Students'Lives*,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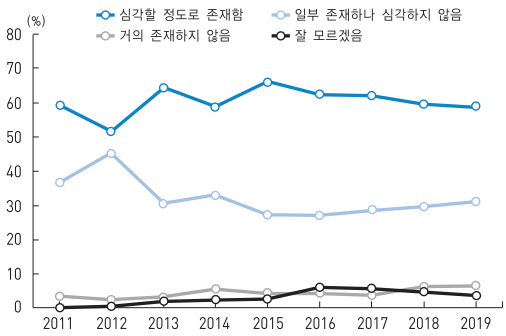
보였다. 이런 결과는 고등학생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한국과 일본에서는 그 수준이 낮지만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이는 적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서는 만족도 수준은 높지만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이가 크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 인식

[그림 Ⅳ-26]은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 결과이다. 2019년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는 응답이 58.8%로 나타났고, '일부 존재하지만 심각하지 않다' 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31.2%, 6.5%로 나타났다. 대학졸업 여부에 따른 차별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이 심각하다는 인식은 2011년 이후 60% 내외로 크게 변화하지 않고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5년까지는 증가 추이를 보이다가 그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는 인식은 2011년 59.3%에서 2015년 66.1%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2011년 36.9%에서 2015년 27.1%로 감소하다가 그 이후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졸업 여부에 따른 차별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 심각성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Ⅳ-26]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인식, 2011-2019



주: 1) 전국 만 19-75세 미만 성인 남녀를 조사대상으로 함.
2) "현재 한국 사회에서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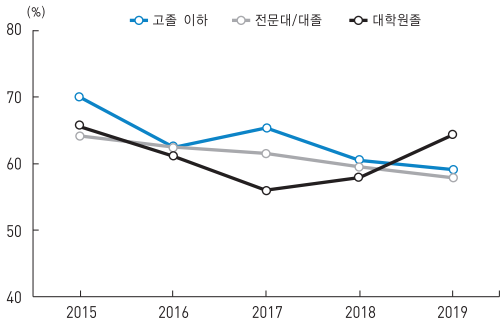
[그림 Ⅳ-27]은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이 심각하게 존재한다는 응답 비율을 최종학력과 가구소득 수준별로 제시한 것이다.

최종학력별로 살펴볼 때, 대학원 졸업 이상 집단이 평균적인 추세와 다른 경향을 보였다. 2015년 이후 전체적인 경향은 감소 추세인 반면, 대학원 졸업 이상 집단은 2017년 이후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이전에는 고졸 이하 집단에서 심각성 인식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2019년에는 대학원 졸업 이상 집단에서 심각하게 느끼는 비율이 가장 많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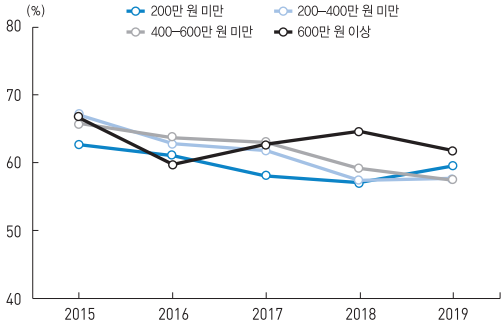
가구소득별 추이를 보면, 모든 집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600만 원 이상 집단은 2016년 크게 감소된 이후에는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결과 600만 원 이상 집단과 나머지 집단으로 구분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림 Ⅳ-27] 최종학력 및 가구소득별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인식, 2015-2019

1) 최종학력



2) 월가구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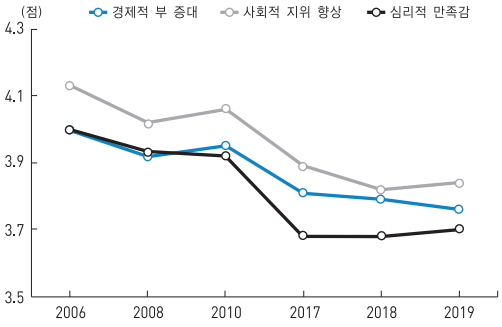


주: 1) 전국 만 19-75세 미만 성인 남녀를 조사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각 연도.

교육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정도

교육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은 교육에 참여하게 되는 기대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Ⅳ-28]은 교육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경제적 부 증대, 사회적 지위 향상, 심리적 만족감 등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이다.

[그림 Ⅳ-28] 교육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2006-2019



주: 1) 전국 만 19-75세 미만 성인남녀를 조사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다음의 측면에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해당 항목에 대해 '매우 작다'부터 '매우 크다'까지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3) 통계치는 '매우 작다'부터 '매우 크다'까지 1-5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각 연도.

2019년을 기준으로 볼 때, 교육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정도는 경제적 부 증대에 대한 영향 3.76점, 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한 영향 3.84점, 심리적 만족감 3.70점 등으로 나타났다(5점 만점).

이런 결과는 평균적으로 볼 때 '보통'과 '다소 크다'의 중간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한 영향을 가장 크다고 느끼고 있고 심리적 만족감에 대한 영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내재적 목적보다는 사회적 지위 향상이라고 하는 외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식되는 경향이 좀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3개 영역에서 교육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점차 감소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 부 증대에 대한 인식은 2006년 4.00점에서 2019년 3.76점으로 감소하였고, 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한 인식도 4.13점에서 3.84점으로 감소하였다. 마찬가지로 심리적 만족감에 대한 인식도 4.00점에서 3.70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영역 중에서 심리적 만족감에 대한 영향 인식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통한 개인의 삶 향상에 대한 믿음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내재적이고 심리적인 만족 측면에 대한 교육의 기능 약화 현상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교육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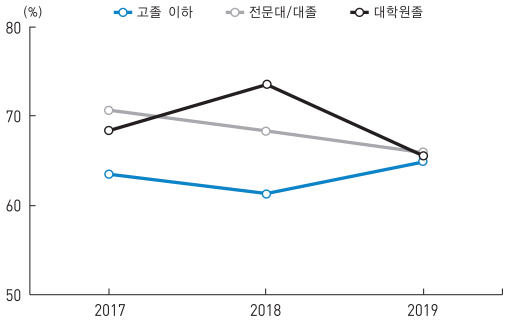
다음에 제시된 [그림 Ⅳ-29], [그림 Ⅳ-30], [그림 Ⅳ-31]은 교육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인식이 사회적 배경 집단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2017년 이후 최근 3개년 동안 각 항목에 대해서 '매우 크다'와 '다소 크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비교하였다.

[그림 Ⅳ-29]는 경제적 부 증대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해 '매우 크다'또는 '다소 크다'는 응답 비율을 최종학력과 가구소득별로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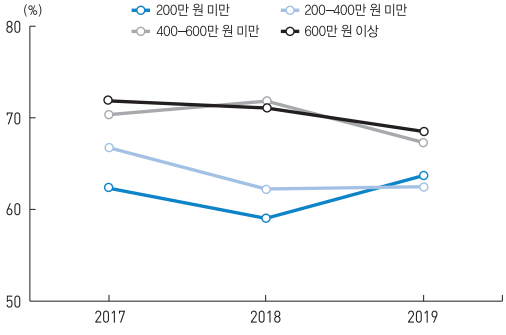
최종학력별로 살펴볼 때, 고졸 이하 집단이 평균적인 추세와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전체적인 경향은 68.7%에서 65.7%로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른

[그림 Ⅳ-29] 최종학력 및 가구소득별 교육이 개인의 경제적 부 증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2017-2019

1) 최종학력



2) 월가구소득



주: 1) 전국 만 19-75세 미만 성인남녀를 조사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경제적 부 증대 측면에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 '다소 작다', '매우 작다' 등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3) 통계치는 '매우 크다' 또는 '다소 크다'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각 연도.

집단들은 이런 전체 추세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고졸 이하 집단은 오히려 63.5%에서 65.0%로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영향이 크다'는 응답 비율이 2017년에는 전문대/대졸 집단에서 가장 높았지만, 2019년에는 집단 간 차이가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가구소득별 추이를 보면, 소득수준에 따라 추

이가 분리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400–600만 원 미만 집단, 600만 원 이상 집단 등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200–4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등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서 교육이 경제적 부 증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차이는 소득수준 간에 좁혀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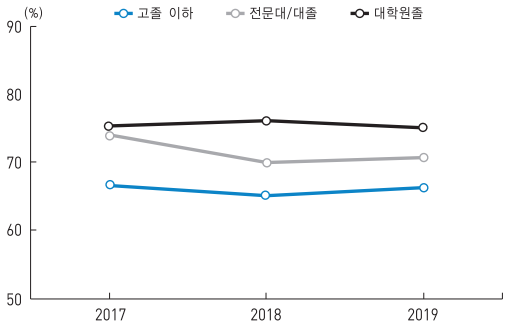
[그림 Ⅳ–30]은 교육이 사회적 지위 향상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해 '매우 크다' 또는 '다소 크다'는 응답 비율을 최종학력과 가구소득별로 제시한 것이다.

최종학력별로 살펴볼 때, 전문대/대졸 집단이 전체적인 감소 추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전체적인 경향은 72.4%에서 70.2%로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른 집단들은 2017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문대/대졸 집단은 74.0%에서 70.8%로 약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영향이 크다'는 응답 비율이 2017년에는 대학원졸 집단과 전문대/대졸 집단이 유사한 수준을 보였지만, 2019년에는 두 집단이 구분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전문대/대졸 집단에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한 믿음이 좀 더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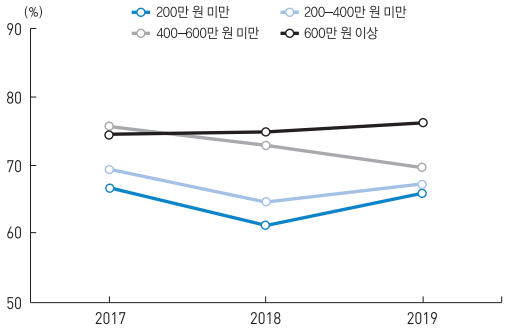
가구소득별 추이를 보면, 다른 소득 집단들은 전체 추이와 비슷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600만 원 이상 집단만 74.5%에서 76.2%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바로 아래 소득 집단인 400–600만 원 미만 집단은 75.7%에서 69.7%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서 교육이 사회적 지위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 집단과 나머지 집단으로 구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사회양극화의 심화 현상이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의 믿음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Ⅳ-30] 최종학력 및 가구소득별 교육이 개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2017–2019

1) 최종학력



2) 월가구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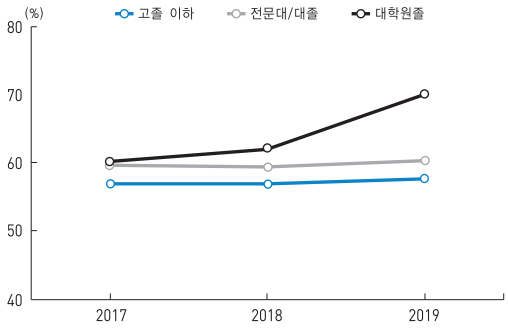


주: 1) 전국 만 19–75세 미만 성인남녀를 조사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사회적 지위 향상 측면에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 '다소 작다', '매우 작다' 등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3) 통계치는 '매우 크다' 또는 '다소 크다'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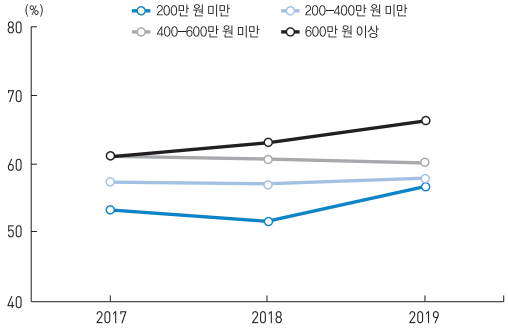
[그림 Ⅳ-31]은 교육이 심리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크다'또는 '다소 크다'는 응답 비율을 최종학력과 가구소득별로 제시한 것이다. 전체 집단에서 볼 때 '교육의 영향이 크다'는 응답 비율은 2017년 59.1%, 2018년 59.2%, 2019년 60.7%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Ⅳ-31] 최종학력 및 가구소득별 교육이 개인의 심리적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2017-2019

1) 최종학력



2) 월가구소득



주: 1) 전국 만 19-75세 미만 성인남녀를 조사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심리적 만족감 측면에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 '다소 작다', '매우 작다' 등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3) 통계치는 '매우 크다' 또는 '다소 크다'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각 연도.

최종학력별로 나누어 보면, 모든 집단들이 전체적인 증가 추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학원졸 집단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는데, 2018년 62.0%에서 2019년 70.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영향이 크다는 응답 비율이 대학원졸 집단과 나머지 집단으로 구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학력 집단에서 내재적 목적으로서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가구소득별 추이에서도 최종학력에 따른 차이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600만 원 이상 집단과 200만 원 미만 집단의 증가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600만 원 이상 집단은 2018년 63.1%에서 2019년 66.3%로 증가하였고, 200만원 미만 집단에서는 51.6%에서 56.7%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서 교육이 심리적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 집단과 나머지 집단으로 구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과 삶의 질

이 글은 교육과 삶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자녀교육 성공에 대한 의미,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삶에 대한 만족도, 대학 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 정도, 교육이 경제적 부 증대, 사회적 지위 향상, 심리적 만족감 등에 미치는 영향 정도 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개관하고, 이와 같은 인식 경향에 최종학력과 소득 수준 등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

는가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자녀교육에 대한 강조점이 명문대 입학, 좋은 직업 획득 등과 같은 수단적 목적에서 인격을 갖추기나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이 내재적 목적을 강조하는 경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징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삶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지만 사회배경에 따른 차이가 적었고 최근으로 올수록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점차 그 심각성이 완화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와 연동하여 교육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도 과거보다는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과 소득수준에 따른 인식 차이는 모든 항목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항목에서 최근 사회양극화의 심화 현상과 같이 교육과 삶에 대한 인식에서도 사회계층 간에 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과 관련하여 하위계층 집단은 전통적인 의미에 머물러 있는 반면에 중산층 이상의 집단은 교육 그 자체의 의미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좀 더 나타나고 있다.